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트레이더들, 인플레 급등으로 향후 연준 금리 인상 예상
- CNBC 전문가들, “올해 2분기 인플레 6% 돌파” 예상

[금융]]
- YahooFinance: 인플레 우려로 미 증시 하락세
- Bloomberg: 인플레 상승으로 세계 채권 금리 수년 만에 최고치

[뉴욕시]
- WSJ: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으로 30만 통근자 피해

[오일]
- Bloomberg: IEA, “상업용 오일 비축량 빠르게 줄어”

[트럼프 행정부]
- NYT: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지지율 줄어…공화당에 부담

[미 무역 관세]
- Politico: 기업들, 관세 환급 원하지만 트럼프 눈치를 본다

[중국 경제]
- WSJ: 이란 전쟁에 중국 경제 예상외 부진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CNBC: Traders now see next Fed interest rate move as a hike following inflation surge
트레이더들, 인플레 급등으로 향후 연준 금리 인상 예상

- 지난주 인플레 급등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연준기금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은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 내년 초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올해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51%, 내년은 그 가능성이 60% 그리고 3월 들어서면 71%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 한편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준 의장을 맡은 Kevin Warsh는 연준이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근 정례 회의에서 3명의 위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의 발표 표현에 거부하는 입장을 표결을 통해 보였다.

기사

CNBC: Inflation rate projected to hit 6% in the second quarter, top economic forecasters say

전문가들, “올해 2분기 인플레 6% 돌파” 예상

- 미국의 톱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수개월간 최근의 인플레 급등 현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다.
- 즉, 지난 금요일 미국내 탑 이코노미스들을 상대로 한 Professional Forecasters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인플레가 6%를 돌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번 설문에서는 물가를 2.7% 예측했었다.
- 이번 설문은 지난 4월에 예년에 비해 높은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가 높은 보고서가 나온 후에 시행된 것이다.

기사

[금융]

YahooFinance: Bloomberg: S&P500, Dow, Nasdaq waver as inflation fears grip markets
인플레 우려로 미 증시 하락세

- 미국 증시는 월요일 중동 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혼조세를 나타냈다.
- S&P 500 지수는 약 0.2% 하락했으며, 나스닥도 0.53%%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 시장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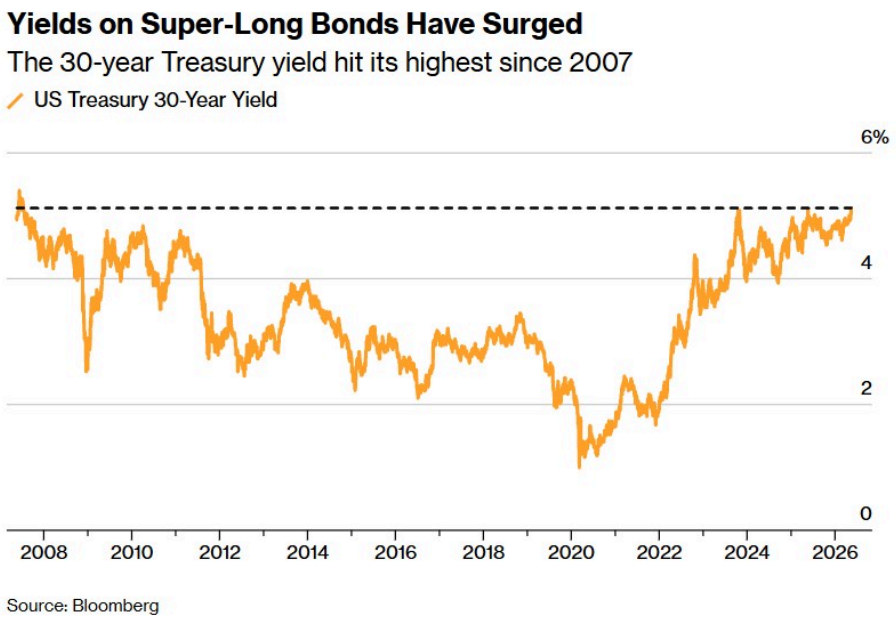


기사

Bloomberg” Global Bond Yields at Multiyear Highs on Mounting Inflation Risk
인플레 상승으로 세계 채권 금리 수년 만에 최고치

- 최근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 우려를 키우면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수년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5%를 돌파했으며, 비슷한 독일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 일본의 국채도 지난 1999년부터 발행된 이후에 30년 모기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장 큰 손실을 보았다.



기사

[뉴욕시]

WSJ: Long Island Rail Road Strike: What to Know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으로 30만 통근자 피해

- 승객 영향 : 운행 전면 중단된 상태다. MTA는 재택근무 권장 및 제한적 셔틀버스 제공하나지만 극심한 혼잡·지연 불가피한 상황이다.
- 파업 이유 : 노동자 3,500명 참여하고 있는데 노조는 물가 상승 반영해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MTA는 3% 인상안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다
- 과거 사례 : 1994년 마지막 파업(이틀 만에 타결) 이후 30년 만의 파업이다. 2014년 파업 위기 및 1960~80년대 수차례 중단 선례도 있었다.
- 정치권 반응 :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기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뉴욕주지사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기사

[오일]

Bloomberg: IEA Chief Warns Commercial Oil Inventories Are Falling Very Fast”
IEA, “상업용 오일 비축량 빠르게 줄어”

-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Faith Birol는 상업용 원유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재고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비료와 디젤 가격 급등이 여행과 농작물 파종 시즌과 겹친 점도 강조했다.

- 그는 “이는 식품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NYT: Trump’s Approval Sinks Amid Unpopular War, Darkening G.O.P. Prospects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지지율 줄어…공화당에 부담

- 대다수 미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결정이 잘못됐다고 봤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 트럼프 지지율은 중동 분쟁 여파 속에 재임 2기의 경우 최저인 37%로 떨어졌고, 경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전쟁 참여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고, 특히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당층에서는 거의 4분의 3이 반대했다. 전쟁이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본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기사

[미 무역 관세]

Politico: ‘Personal to the president’: Companies try to avoid Trump’s wrath over tariff refunds
기업들, 관세 환급 원하지만 트럼프 눈치를 본다

- 관세 불법 대법원 판결로 관세 1천6백60억 불을 수입업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에 트럼프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관세 환급 받으려는 회사들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루머까지 퍼졌다.
- 일부 기업들은 미 세관국경보호첨(CBP)의 환급 신청 포털에 환급받게되는 금액을 공개화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분기 실적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눈에 잘 띄지 않게 공시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트럼프 눈밖에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 혹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원하지만,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기업들의 경우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가장 명백한 경우만 돈을 돌려주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세관국경보호청으로부터 그들의 소송에 오류가 있다고 듣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나중에 받을 관세 환급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겠다는 희망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경영진들이 관세 환급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관세 환급을 통해 회사가 ‘ 횡재’를 얻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

[중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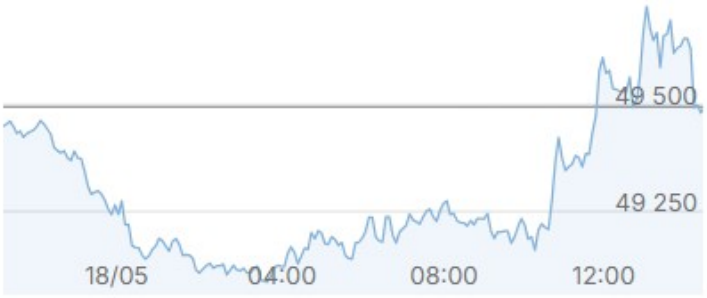
WSJ: China’s Economy Unexpectedly Weakens as Iran War Fallout Mounts

이란 전쟁에 중국 경제 예상외 부진

- 이란 전쟁 여파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약화됐다. 4월 중국의 소비·산업생산·투자·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둔화됐다.
- 반면 수출은 4월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강세를 유지해 성장 불균형이 이어졌다.
- 부동산 부문도 계속 경기 심리를 짓눌렀으며, 1~4월 부동산 투자는 14% 감소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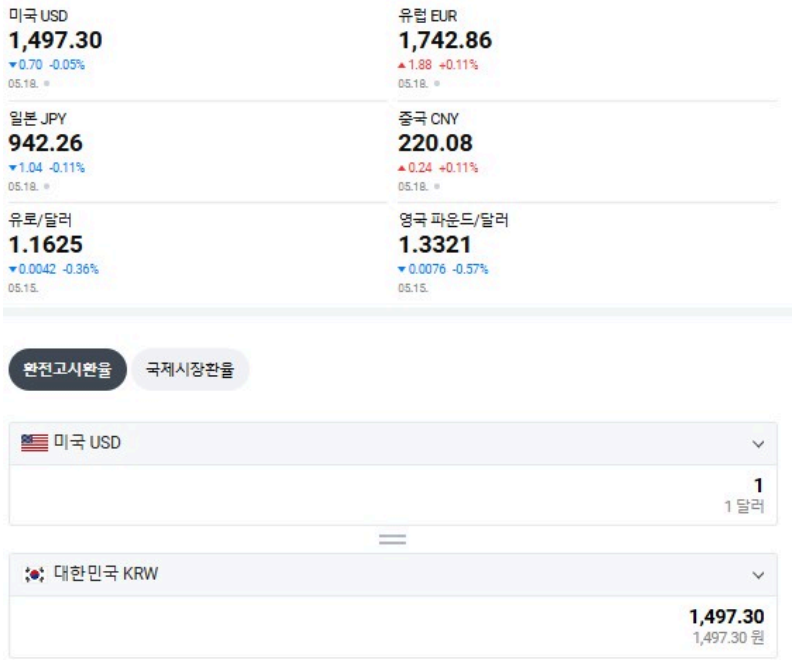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49,438.00	-88.1	-0.18%
US 500	7,383.20	-25.3	-0.34%
Dow Jones	49,451.00	-75.17	-0.15%
S&P 500	7,384.29	-24.21	-0.33%
Nasdaq	26,053.03	-172.11	-0.66%
S&P 500 VIX	18.62	+0.19	+1.03%
Dollar Index	99.055	-0.153	-0.1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24/32	5.138	0.018
10-Year Note	4.375	-1/32	4.606	0.010
7-Year Note	4.125	0/32	4.432	0.000
5-Year Note	3.875	0/32	4.266	0.002
3-Year Note	3.875	0/32	4.150	0.006
2-Year Note	3.75	0/32	4.084	0.009
1-Year Bill	0	0/32	3.804	-0.011
6-Month Bill	0	0/32	3.732	0.000
3-Month Bill	0	0/32	3.682	0.000
1-Month Bill	0	0/32	3.655	0.005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